

부산항만공사와 바르셀로나항만공사, 물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

The ports of Busan and Barcelona join forces to revitalize logistics exchanges

바르셀로나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 (BPA)가 공동으로 바르셀로나 물류센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와 남유럽간 거래를 하는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물류 플랫폼을 제공하고 무역 활성화를 위한 두 항만의 첫 번째 협력 프로젝트이다.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바르셀로나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물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와 바르셀로나항만공사는 COVID-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양항간 해상 물동량과 수출 및 수입 업체 현황을 포함해 바르셀로나의 물류시장을 분석했다.

바르셀로나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는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이사진 구성, 물류센터 운영 방향 및 기타 세부 사항을 확정하는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공동 물류센터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홍보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 바르셀로나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 및 카탈루냐 무역청 (ACCIÓ) 아시아 지사의 지원을 받아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는 약 70 여개의 한국기업이 참여했다.

바르셀로나항만공사는 이번 공동 물류센터 프로젝트가 양항을 통한 동북아와 남유럽간 물류 활성화 및 유럽과 북아프리카 진출에 있어 한국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공동 물류센터 사업은 두 항만공사가 추진하는 첫 번째 협력 사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으며, 두 항만공사는 남유럽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이 필요로 하는 물류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